

1인 창조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 관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

육헌영*·서종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디지털경영학과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부

An Empirical Study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Self-Employed Creative Companies - Focused on the Relational Characteristics -

Heon-Young Yuk* · Jong-Hyen Seo**

*Department of Digital Management,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ntribute in establishing the objectives of government policies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al characteristics surrounding the self-employed creative enterprises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where the specific empirical studies on the self-employed creative enterprises haven't been perform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verification, the social capitals such as reliability, reciprocity and network are necessary due to the characteristics possessed by the self-employed creative enterprises while the reliability between cooperative enterprises is created an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continues when the enterprises are faithful to their intrinsic activities such as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rather than the entrepreneur spirit. Such win-win cooperation was eventually shown as having a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enterprises.

Keywords : Self-employed creative company, financial performance, relational characteristics

1. 서론

세계경제는 제조·화학중심의 Industrial Economy, IT중심의 Knowledge Economy를 거쳐 최근에 상상력과 창의력중심의 Creative Economy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식경제의 첨단기술은 기업의 생산성을 양적으로 향상시킨 반면 내용적으로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감소시켜 실업자를 양산해왔다. 한국경

제 역시 동일한 범주에서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경제는 과거 수출지향적인 중화학 중심에서 스마트폰·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발전을 이루어왔으나, 최근 새로운 성장동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고용없는 성장, 청년실업문제 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1인 창조기업은 정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으로 정부의 법률적 지원과 함께 제안되었다.

†Corresponding author : Jong-Hyen, Seo,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237 Sangidaehak-ro, Siheung-si, Gyeonggi-do, Korea
E-mail: jhseo@kpu.ac.kr

Received July 01, 2015; Revision Received September 09, 2015; Accepted September 18, 2015.

일반기업과 1인창조기업의 공통점은 기업운동을 위한 핵심기능들이 계속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수익이 창출되어야 한다. 차이점은 일반기업은 기업운동을 위한 핵심요소를 각 구성원이 나누어 가지고 있으며 1인 기업은 독창성과 더불어 기업운영에 대한 핵심요소가 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아무리 독창성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중국적으로는 이해관계자와의 다양한 관계 및 교류과정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기업가 지향성, 1인창조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자본, 환경의 불확실성, 상생협력과 같은 관계적 변수를 통해 경영성과와의 관련성을 추적하고 그 의미추출을 통해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여 1인 창조기업이 지속성장 가능한 일반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2. 선행연구

2.1 1인 창조기업의 정의 및 현황

아직까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의는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명확하게 개념화되지 않았다. 다만 Tome Peters가 Personal Service Firm이란 개념으로 1인 기업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Thomas Malone이 인터넷에서 자신의 활동 무대를 찾는 신흥노동집단이라는 개념으로 e-lancer를 정의한 바 있다. Daniel Pink는 조직인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프리랜서를, Bruce Jundson은Go-It-Alone Entrepreneur의 특징을 최소의 투자로 창업하며 회사에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무한한 수익 잠재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일하는 기업이라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1인기업과 달리 1인 창조기업은 아직까지 전통적인 산업의 분류, 메커니즘에 의해 정리된 개념이 아닌 우리경제에서 새로운 시장창출과 산업혁신이라는 정책적, 전략적 차원에서 제시한 상징적 개념이다. 국내에서 중소기업청은 2011년 제정된 법률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여 그 규모와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 수는 2009년 20만3000개, 2010년 23만5000개, 2011년 26만2000개, 2012년 29만6137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약 1.2%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장년창업이 아이디어 중심의 청년창업보

다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지식서비스 산업이 제조업 분야 보다 8.4%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4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9].

2.2 기업가 지향성과 경영성과

기업가 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기업가정신이 신사업 창출, 조직의 역량제고, 제품과공정혁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중국적으로 경영성과에 직,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Peterson and Berger(1971)는 기업가 지향성이 조직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27]. 또한 Zahra(1991) 역시 기업가적 행동이 조직의 역량을 위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함으로써 결국 기업이 성과를 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34]. 한편 Burgelman(1991)은 기업가 정신이 제품과 공정혁신을 강화함으로써 성공적인 조직구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2]. 국내 논문에서는 권업과 신진교(2007)가 중소기업의 기업가적 활동이 기업의 매출 성장률과 수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한바 있다[32].

2.3 사회적 책임활동/사회적 자본과 경영성과

Cochran and Wood(1984)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Oritzky, Schmidt, and Rynesb(2003)도 CSR에 대한 52개 논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6][25]. 김기현(2013)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5]. 사회적 자본과 기업성과 대한 연구를 한 학자로서 Nishigichi(1994)는 사회적 자본이 기술혁신 매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으며 이동현(2008) 역시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인지적 관계적 차원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23][7].

2.4 환경 불확실성과 경영성과

상호협력 형태의 거래관계는 상호간 이익을 공유하고 위험을 나누며 범위가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필요하

면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Henderson 1990)이다 [14]. 따라서 환경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기업 간 협력은 증가하며, 기업 간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대처한다.

그러므로 기업 간 협력은 환경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으며(Bensaou 1997). 불확실성의 감소가 외부 리스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이러한 대응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1].

2.5 상생협력과 경영성과

Simmie(2003)은 상생협력의 본질은 기업 간의 신뢰유지를 통해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상생협력의 결과로 기업 간 공동 목표의 달성이 보다 용이해 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였다[28]. 또한 상생협력에 따른 직접적인 성과를 제시한 학자로 Elliff(1998)은 비용절감 품질개선, 생산설비의 효율성 제고, 신제품개발 주기단축 고객서비스향상을, Metz(1998)은 불량률 감소와 매출증진을 Chopa & Meindl(2004)는 거래비용 감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7] [5].

3. 연구 설계

3.1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1인 창조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령, 업종, 학력, 거주지역별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된 20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분석하였다. 크게 기업가지향성(혁신성, 진취성, 위험관계성) 사회관계성(사회적 책임, 사회적 자본) 환경 불확실성(동태성, 복잡성, 적대성) 상생협력(관계지속성, 관계지속성) 경영성과(재무성과, 시장성과)로 구분하여 설문 내용을 구성 하였다.

조사는 모집단의 구성이 비교적 명확하고 접촉이 용이하여, 조사 및 분석의 편의성과 신속한 처리를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 온라인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표본은 총 1,052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이중 240개가 수집되어 회수율은 약 23%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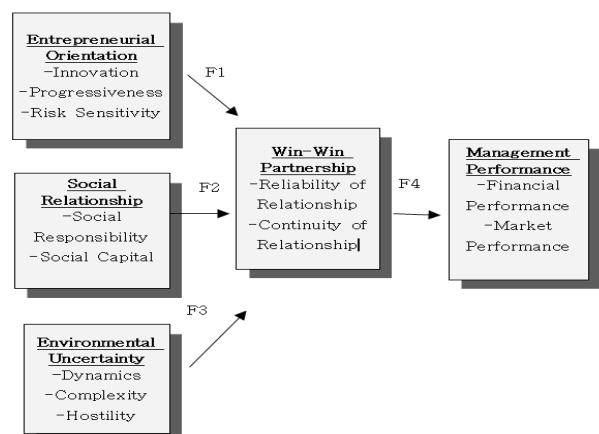
3.2 분석 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선행연구에 있어서는 그동안 국내.

외에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을 분석하고 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연구에 사용할 모형을 확정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가설검증을 위한 실증적 연구는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작성한 설문지를 도구로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문대상은 1인 창조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대표로 제한하되 공동사업자나 가족기업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대표 1명에 한정하였다. 표본단위는 일반적으로 창업한지 2년 이상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2년 미만의 경우 기업성과 변수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였다[26]. 실증분석은 SPSS 20.0과 AMOS 20.0을 사용하여 신뢰성분석, 타당성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경로계수의 확인을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3.3 연구모형

기존연구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기업가지향성과 사회적 책임 사회적 자본 등의 개별 변수들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들이 존재하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관계적 요소를 포괄적 시각에서 보는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회가 다변화 복잡화되고 있는 만큼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역시 단일적 시각보다는 복합적 시각에서 보는 관점이 좀 더 유용할 것이다. 더불어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선행 요인들이 상생협력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매개요인으로서의 상생협력과 경영성과의 관련성을 밝힌다는 의미에서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Figure 1] Research Model

3.4 연구가설

필요한 가설은 선행논문들이 대체로 각각의 변수들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상생협력의 매개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음을 감안하여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를 배경으로 추론하였다. 따라서 F1:기업가 지향성(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상생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F2:사회관계성(사회적 책임, 사회적 자본)이 상생협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F3:환경 불확실성(동태성, 복잡성, 적대성)은 상생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F4:상생협력(관계신뢰성, 관계지속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로 설정하였다.

3.5 변수의 조작적정의

기업가 지향성의 구성요인은 기업가 정신에 관한 선행연구(Morris & Paul, 1987; Lumpkin & Dess, 1996)를 바탕으로 혁신성 4문항, 진취성 4문항, 위험감수성 4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18] 사회적 책임활동의 구성요인은 Carroll(1979, 1991)이 분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4가지 요인을 대변할 수 있는 4개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9]. 또한 사회적자본의 측정문항은 Nahapiet & Ghoshal(1998), Fukuyama(1995), Fountain(1998)의 연구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4문항, 신뢰 3문항, 호혜성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21] [10] [8] 환경의 불확실성의 측정문항은 Miller(1988)와 Miller & Drfge(1986)의 연구를 바탕으로 동태성 4문항, 복잡성 4문항, 적대성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20] [19]. 상생협력의 측정문항은 Nelson & Cooperider(1996), Nonaka & Takeuchi(1995), Telser(1980), Williamson(1983)의 연구를 바탕으로 파트너의 신뢰성 4문항과 관계의 지속성 4문항으로 구성하였고[22] [24] [31] [33] 경영성과 설문문항은 Govindarajan & Fisher(1990)와 Gupta(1987)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재무성과 4문항과 시장성과 4문항으로 구성하여 각각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2] [13].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Factor	Measured Questions		Reference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novation		Frishammar & Hftrte(2007) Gonzflez-Benito tal.(2009)
	Progressiveness		
	Risk Sensitivity		
Social Relationship	Social Responsibility		Carroll (1979, 1991)
	Social Capital	Network	Fukuyama(1995)
		Reliability	Fountain(1998)
		Reciprocity	Nahapiet & Ghoshal(1998)
Environmental Uncertainty	Dynamics		Miller & Drfge(1986)Miller(1988)
	Complexity		
	Hostility		
Win-Win Partnership	Reliability of Relationship		Nonakai(1995)Nelson(1996)
	Continuity of Performance		Telser(1980)Williamson(1983)
Management Performance	Financial Performance		Govindarajan & Fisher(1990) Gupta(1987)
	Market Performance		

4. 실증분석

4.1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남성 70.2%(144명), 여성 29.8%(61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으로는 40대 42.9%(88명), 50대 27.8%(57명), 30대 23.9%(49명), 60대이상 4.9%(10명), 20대 0.5%(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연도는 5년이하 30.7%(63명), 20년이상 24.9%(51명), 5년-10년 22.9%(47명), 10년-15년 12.2%(25명), 15년-20년 9.3%(19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으로는 대졸이 42.9%(88명), 석사 23.9%(49명), 전문대졸 15.6%(32명), 고졸 9.3%(19명), 박사 7.8%(16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전공으로는 공학이 28.8%(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상경 27.3%(56명), 인문 16.1%(33명), 자연과학 6.3%(13명), 예체능 1.5%(3명), 의학 0.5%(1명)으로 나타났다.

업종으로는 서비스업 60.0%(123명), 제조업 40.0%(8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4.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본 적합도를 판단하는 KMO의 경우 기업가 지향성 0.783, 사회적 책임 0.737, 사회적 자본 0.767, 상생협력 0.771, 경영성과 0.855로 나타났으며, 측정항목간의 상관행렬에 대한 단위행렬여부를 검정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기업가지향성 $\text{Approximated-}\chi^2=871.266$ $df=66$,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p=0.000$, 사회적 책임 $\text{Approximated-}\chi^2=260.889$. $df=6$,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p=0.000$, 사회적 자본 $\text{Approximated-}\chi^2=673.159$ 로 $df=66$,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p=0.000$,

환경 불확실성 $\text{Approximated-}\chi^2=996.410$, $df=66$,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p=0.000$, 상생협력 $\text{Approximated-}\chi^2=739.829$ 로 $df=21$,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p=0.000$, 경영성과 $\text{Approximated-}\chi^2=1266.045$, $df=28$,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p=0.000$) 수집된 데이터와 측정항목은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분산설명력은 기업가지향성 64.278%, 사회적 책임활동 63.600%, 사회적 자본 71.922%, 환경 불확실성 67.326%, 상생협력 77.077%, 경영성과 81.252%로 나타났다. 한편, 요인적재값은 모든 항목이 0.5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모든 항목의 개념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신뢰도분석 결과 (기업가지향성: 위험감수성 Cronbach's $\alpha=0.893$, 혁신성 0.810, 진취성 0.678, 사회적 책임활동: 0.803, 사회적자본: 호혜성 0.870, 신뢰 0.756, 네트워크 0.734, 상생협력: 관계 지속성 0.885, 파트너 신뢰성' 0.866, 경영성과 : 재무성과 0.924, 시장성과 0.906) 모두 기준치인 0.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4.3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각 연구단위에 대하여 집중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구성개념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Table 2 >Goodness of Fit in research model

$\chi^2(p)$	df	GFI	AGFI	CFI	NFI	IFI	TLI	RMR	RMSEA
1559.486 ($p=0.000$)	920	.734	.688	.869	.736	.872	.852	.045	.064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hannel		Factor Load	S.E.	C.R.	P	Reliability of Concept	AVE
Innovatio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1	0.793	Fix	-	-	.878	.649
	Entrepreneurial Orientation 2	0.864	0.097	10.961	.000		
	Entrepreneurial Orientation 3	0.634	0.095	8.182	.000		
	Entrepreneurial Orientation 4	0.574	0.102	7.332	.000		

<Table 3> 계속

Progressivenes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5	0.545	Fix	-	-	.813	.532
	Entrepreneurial Orientation 6	0.823	0.215	6.27	.000		
	Entrepreneurial Orientation 7	0.510	0.176	5.02	.000		
	Entrepreneurial Orientation 8	0.512	0.143	5.034	.000		
Risk Sensitivity	Entrepreneurial Orientation 9	0.830	Fix	-	-	.908	.714
	Entrepreneurial Orientation 10	0.916	0.079	14.349	.000		
	Entrepreneurial Orientation 11	0.797	0.083	12.054	.000		
	Entrepreneurial Orientation 2	0.743	0.087	10.92	.000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Social Responsibility 1	0.539	Fix	-	-	.853	.605
	Social Responsibility 2	0.872	0.227	7.33	.000		
	Social Responsibility 3	0.889	0.227	7.369	.000		
	Social Responsibility 4	0.557	0.198	5.706	.000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 1	0.623	Fix	-	-	.829	.619
	Social Capital 2	0.682	0.151	6.954	.000		
	Social Capital 3	0.649	0.14	6.711	.000		
Dynamics	Environmental Uncertainty 1	0.919	Fix	-	-	.915	.783
	Environmental Uncertainty 2	0.857	0.044	18.615	.000		
	Environmental Uncertainty 3	0.797	0.05	15.486	.000		
Complexity	Environmental Uncertainty 5	0.650	Fix	-	-	.852	.593
	Environmental Uncertainty 6	0.813	0.141	8.302	.000		
	Environmental Uncertainty 7	0.802	0.144	8.246	.000		
	Environmental Uncertainty 8	0.645	0.142	7.055	.000		
Hostility	Environmental Uncertainty 9	0.648	Fix	-	-	.852	.537
	Environmental Uncertainty 10	0.619	0.177	5.263	.000		
	Environmental Uncertainty 11	0.758	0.221	6.642	.000		
	Environmental Uncertainty 12	0.790	0.223	6.763	.000		
	Environmental Uncertainty 13	0.736	0.21	6.547	.000		
Reliability of Relationship	Win-Win Partnership 2	0.962	Fix	-	-	.930	.819
	Win-Win Partnership 3	0.813	0.062	13.115	.000		
	Win-Win Partnership 4	0.699	0.066	10.614	.000		

<Table 3> 계속

Continuity of Performance	Win-Win Partnership 5	0.691	Fix	-	-	.955	.845
	Win-Win Partnership 6	0.737	0.105	9.109	.000		
	Win-Win Partnership 7	0.961	0.117	11.277	.000		
	Win-Win Partnership 8	0.851	0.123	10.422	.000		
Market Performance	Management Performance 1	0.812	Fix	-	-	.949	.825
	Management Performance 2	0.743	0.06	14.658	.000		
	Management Performance 3	0.950	0.08	15.602	.000		
	Management Performance 4	0.909	0.082	14.721	.000		
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Performance 5	0.865	Fix	-	-	.917	.727
	Management Performance 6	0.773	0.072	12.031	.000		
	Management Performance 6	0.912	0.068	16.18	.000		
	Management Performance 6	0.742	0.076	11.551	.000		

4.4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였으며 결

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상관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며 0.9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Table 4 > Correlation Analysi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Capital	Environmental Uncertainty	Win-Win Partnership	Management Performance	Average	Standard Deviatio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1						3.58	.467
Social Responsibility	.310**	1					3.51	.688
Social Capital	.463**	.467**	1				3.52	.528
Environmental Uncertainty	.202**	.258**	.303**	1			3.27	.493
Win-Win Partnership	.316**	.230**	.508**	.258**	1		3.64	.482
Management Performance	.258**	.326**	.287**	.195**	.205**	1	3.24	.705

** p<.01***: p<.001

4.5 가설검정

연구모형의 분석에는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이 이용되었으며 최우도 추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한 추정법이 이용되었다.

<Table 5 > Goodness of Fit in research model

$\chi^2(p)$	df	GFI	AGFI	CFI	NFI	IFI	TLI	RMR	RMS EA
1675.543 (p=0.000)	937	0.720	0.677	0.848	0.716	0.851	0.833	0.063	0.068

가설검정결과는 <표6 > 과 같다.

<Table 6 > Statistical hypothesis test

Hypothesis	Channel		Standardized Coefficient (β)	Standard Error (SE)	C.R(T).	P	Result of Hypothesis
H1-1	Innovation	Relationship of Partnership	-0.019	0.135	-0.157	.875	Rejected
H1-2	Progressiveness		0.105	0.204	0.844	.399	Rejected
H1-3	Risk Sensitivity		-0.198	0.101	-1.869*	.062	Selected
H2-1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0.169	0.208	-1.242	.214	Rejected
H2-2	Social Capital		0.686	0.31	3.521***	.000	Selected
H3-1	Dynamics		0.002	0.06	0.028	.978	Rejected
H3-2	Complexity		0.126	0.119	1.246	.213	Rejected
H3-3	Hostility		-0.188	0.131	-1.965**	.049	Selected
H1-4	Innovation		Continuity of Relationship	0.101	0.087	0.822	.411
H1-5	Progressiveness	0.107		0.131	0.826	.409	Rejected
H1-6	Risk Sensitivity	-0.269		0.072	-2.208**	.027	Selected
H2-3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0.472		0.162	-2.760***	.006	Selected
H2-4	Social Capital	0.984		0.256	3.786***	.000	Selected
H3-4	Dynamics	0.143		0.039	1.740*	.082	Selected
H3-5	Complexity	-0.023		0.08	-0.211	.833	Rejected
H3-6	Hostility	-0.033		0.081	-0.346	.729	Rejected
H4-1	Reliability of Relationship	Market Performance		0.141	0.064	2.195**	.028
H4-2	Reliability of Relationship	Financial Performance	0.105	0.042	2.469**	.014	Selected
H4-3	Reliability of Relationship	Market Performance	0.164	0.131	1.832*	.067	Selected
H4-4	Reliability of Relationship	Financial Performance	0.255	0.145	2.786***	.005	Selected

***: $p < .01$, **: $p < .05$, *: $p < .10$

5. 결론

5.1 연구의 요약

본 논문은 현재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증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하에서 1인 창조기업의 성과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정부정책의 방향설정과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신념하에 시작하였다.

검증결과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려는 위험감수성이 기업 간 상생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1인 창조기업대표의 안정회귀적인 성향이 나타났다.

또한 1인 창조기업의 경우 기업본연의 이익창출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고 기업의 윤리적, 자선적, 환경적 책임 같은 사회적 책임이 후순위로 이루어져한다는 인식과, 사회적 자본의 경우 거래 비용을 절감해 물적·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환경의 불확실성은 시장에 경쟁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파트너 신뢰십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변화정도가 심하거나 계속될 경우 관계의 지속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상생협력은 시장성과와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인 창조기업의 관계적 특성상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이 지향성보다는 생산성향상과 같은 기업 본연의 활동에 충실할 때 협력기업 간 신뢰가 생기고 협력 관계가 지속되며 이러한 상생협력이 종국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다.

5.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창조기업의 인적 물적 자본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관계형성을 위한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통한 상생협력 관계의 구축이 경영성공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방향 역시 1인 창조기업의 가치사슬을 연계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워크숍을 통한 교육, 네트워킹, 시장정보공유 등 관계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1인 창조기업이 일반기업과 구분될 수 있는 점을 창조성이라 할 때 이러한 창조성은 안정적인 사업운영 바탕위에서 발현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지향성 중 위험감수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불확실성의 상생협력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들이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1인 창조기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 핵심기술 외에 밸류체인 상의 기업운영 기능을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실무전문가 집단의 육성방안, 네트워크상의 아웃소싱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시장형성방안 등 다양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5.3 한계점

본 연구는 1인 창조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적 특성에 관한 실증 연구로 의미가 있다. 다만 국내 1인 창조기업의 태동기간이 짧은 관계로 경영성과를 발생하고 있는 기업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관계적 특성에 관한 변수들의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는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및 중소기업과 1인창조기업과의 비교연구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6. References

[1] Bensaou, M.(1997), "Interorganizational Cooperation: The Rol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 Empirical Comparison of U.S. and Japanese Supplier Relation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8(2), 107-124.

[2] Burgelman, Robert A. (1991), "Intra organizational ecology of strategy making organizational adaption: Theory and field research." *Organizational Science*, Vol. 2, 239-262.

[3] Carroll, A. B.(1979), "A three-dimens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4), 497-505.

[4] Carroll, A. B.(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34(4), 39-48.

[5] Chopra, S. and p. Meindl (2004), "Supply Chain Management :Strategy, Planning and Operation." *rentice Hall, Inc, Upper addle River, New Jersey*

[6] Cochran. P. and Wood. R.(1984),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nancial 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27 .42-65.

[7] Dong Hyun-Lee (2008),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Firm Performance in Direct Selling Business." *Juurnal of Small Business Research* Vol.30 No.1, 41-66.

[8] Fountain, J. (1998), "Social Capital: A Key Enabler of Innovation, in L. Branscomb and J. Keller(Eds.)" *Investing in Innovation*, Cambridge, MA: MIT Press.

[9] Frishammar, J., & Ilke Hürte, S. (2007), "The role of market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for new 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 in manufacturing firms."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19(6), 765-788.

[10] Fukuyama, F. (1995), "Trust: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11] González-Benito, I., González-Benito, J. & Muñoz-Gallego, P. A. (2009), "Role of entrepreneurship and market orientation in firms success."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43(3/4), 500-522.

[12] Govindarajan, V., & Fisher, J. (1990), "Strategy, control systems, and resource sharing: Effects on business-unit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3(2), 259-285.

[13] Gupta, A. K. (1987), "SBU strategies, corporate-SBU relations, and SBU effectiveness in strategy implement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30(3), 477-500.

[14] Henderson, J.C.,(1990), "Plugging into Strategi Partnerships: the Critical IS Connection." *Sloan Management Review* 31(3), 7-18.

[15] Ki Hyun-Kim (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ublic Corporations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Trust." *Inha University Doctoral thesis*.

[16] Lin, N., Cook, K., & Burt, R. (2001), "Building a Network Theory of Social Capital, in Lin, N. K. Cook and R. Burt(Eds.).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ldine De Gruyter.

[17] Mets. P.J.(1998)," *Demystifying Supply Chain*

- Management."Supply Chain Management Review, Vol.3, Winter, 50-55.
- [18] Morris, M. H., & Paul, G. W. (1987),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marketing in established firm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 247-259.
- [19] Miller, D., & Drige, C. (1986), "Psychological and traditional determinants of structure."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1, 539-560.
- [20] Miller, D. (1988), "Relating Porter's business strategies to environment and structure: Analysis and performance implications."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1(2), 280-308.
- [21] Nahapiet, J., & Ghoshal, S. (1998),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2), 242-266.
- [22] Nelson, K. M., & Coopriider, J. G. (1996), "The contribution of shared knowledge to IS group performance."MIS Quarterly, 409-432.
- [23] Nishiguchi, T. (1994),"Strategic industrial sourcing: The Japanese advantage."Oxford University Press.
- [24] Nonaka, I., & Takeuchi, H. (1995), "The knowledge-creating company: How Japanese companies create the dynamics of innovation."Oxford university press.
- [25] Oritziky, M. F. L. Schmidt, and S. L. Rynesb(2003), "Corporate Social and Financial Performance: A Meta-Analysis."Organization Studies, 24, 403-441.
- [26] Ostgaard, T. A. and S. Birly.(1994), "Personal Networks and Firm Competitive Strategy : A Strategic or Coincidental Mat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4) : 281-305.
- [27] Peterson, R. J. and Berger, D. (1971), "Entrepreneurship in organizations. "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6. 97-106.
- [28] Simmie(2003),"novation and Urban Regions as National and Nodes for the Transfer and Sharing of Knowledge."egiona Studies, Vol.37 No.6-7, 607-620.
- [29]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2012), "The Self-Employed Creative Companies status and operating status."
- [30] Sun Mi -Park (2000),"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New Intellectual Capita."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search, Vol.2 No.1, 171-203
- [31] Telser, L. G. (1980), "A theory of self-enforcing agreements." Journal of Business, 53, 27-44.
- [32] Up Kwon. Jin Kyo Shin (2007), "Governance Structure,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Performances."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 Vol. 14 No.4 217-233.
- [33] Williamson, O. E. (1983), "Credible commitments: Using hostages to support exchange."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19-540.
- [34] Zahra, S. A.(1991), "Predictors and financial outcome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6, .258-282.

저 자 소 개

육 현 영



군산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성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교보생명(주)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마이 비즈컨설팅(주) 대표 컨설턴트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중소기업 경영전략, BSC, 마케팅을 연구 중이다.

서 중 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다. LG CNS 컨설팅 부문에서 선임컨설턴트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 이다. 주요 관심사는 R&D 성과평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품질경영 및 신뢰성 분석 등이며 최근에는 기술경영 및 R&D에 관심을 갖고 연구 중 이다.